



해외시리즈 '처키2' (왼쪽)와 '레지던트 에이리언2'



/웨이브 제공

# 새해에도 OTT 해외시리즈 풍성

### 왓챠, 일론 머스크 쇼 13일 공개 웨이브, '처키'·티빙 '고스트' 살인·금융 범죄드라마도 대기

새해를 맞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신작 해외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8일 OTT 업계에 따르면 이달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이나 사건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처키'와 같은 인기 드라마의 시즌2, 신작 범죄드라마 등이 시청자들을 만난다.

왓챠는 전기자동차 세계 1위 업체 테슬라 대표인 머스크의 다큐 시리즈 '일론 머스크 쇼'를 오는 13일 선보인다.

총 3부작에 걸쳐 머스크의 생애를 조명한 '일론 머스크 쇼'는 머스크가 첫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해 실리콘밸리에 합류하게 된 시점부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우여곡절 성장사를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범죄자 버니 메이도프를 조명한 4부작 다큐 시리즈 '버니 메이도프: 월가의 괴물' 공개했다.

다큐는 과거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4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을 갈취한 범죄자 버니 메

이도프가 벌인 사기극을 돌아본다.

범죄 피해자와 조사관, 유권기관 직원 등의 인터뷰는 물론 버니 메이도프의 증언 녹화 영상도 볼 수 있다. 다큐는 버니 메이도프뿐만 아니라 그의 수상한 거래를 눈감아준 정부 기관과 금융 시스템도 공범으로 지적한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웨이브는 인기를 끈 해외시리즈 '처키', '레지던트 에이리언' 등의 두 번째 시즌으로 새해를 달군다.

NBC유니버설 드라마 '처키'는 학교에서 놀림 받던 주인공이 시장에서 살인마의 영혼이 깃든 인형인 처키를 구매하며 잔인한 복수에 가담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크기도 작고 얼굴도 귀엽지만, 행동과 언행은 섬뜩한 처키가 행하는 복수가 통쾌함을 준다. 현재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

이달 중순 공개 예정인 '레지던트 에이리언 2'는 작은 마을에 불시착해 의사로 위장한 외계인이 열혈경에 경찰들의 수사에 가담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SF 코미디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인간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계인과 마을 사람들의 유쾌한 동거로 더 큰 웃음을 전한다.

티빙은 오는 19일 '고스트' 시즌2의 파트1를

공개한다.

'고스트'는 아름다운 저택을 물려받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줄만 알았던 부부가 그 집에 정착해 있던 개성 강한 여동 유령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다.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범죄물도 준비돼 있다. 왓챠는 27일 수사 드라마 '쓰리 파인즈'를 공개한다.

'쓰리 파인즈'는 베테랑 경감 아르망 가마슈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며 오랫동안 묻혀 있던 비밀을 발견하는 미스터리물이다.

조용한 마을 쓰리 파인즈에서 난해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가마슈 경감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뒤틀린 이면을 발견한다. 추리소설 '아르망 가마슈 경감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넷플릭스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벌이는 범죄를 그린 신작 '칼레이도스코프'를 감상할 수 있다.

'칼레이도스코프'는 베테랑 도둑들이 강철 금고를 뚫기 위해 펼치는 작전을 그린 작품으로, 과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치는 와중에 700억 달러의 재권이 사라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 “함께 역경 극복하자”는 응원 담았죠

### 하이키 '로즈 블로섬' 발매

“저희의 매력은 건강미예요. 지금까지는 외적인 건강미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서이)

‘운동돌’이라는 수식어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뽐냈던 그룹 하이키(HI-KEY)가 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응원가를 들고 돌아왔다.

하이키는 미니 1집 ‘로즈 블로섬’(Rose Blossom)을 내놓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타이틀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비롯해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7곡이 신보에 실렸다.

이 곡은 팬들 뿐만이 아니라 데뷔 2년 차를 맞은 하이키 자신들에게 건네는 응원가이기도 하다. 노랫말에서 장미가 ‘발레’와 ‘거센 바람’을 극복해 꽃을 피웠던 것처럼, 하이키가 넘어야 할 어려움은 없었을까.

리이나는 “신인 걸그룹이기에 어쩔 수 없는 미숙한 점들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고 말했다.

하이키는 데뷔 초기에는 마이크를 몸에 부착하는 일에서도 담범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싱글 ‘런’(Run)을 발표

하고 활동을 이어가며 차근차근 자신감을 쌓았다.

하이키는 지난해 11월에는 데뷔 후 첫 야외 공연인 ‘2022 K-뮤직, 평창’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했다.

휘서는 “첫 야외 공연이지만 부담감은 없었다”며 “팬들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호흡 하나 음악 방송 때보다 더 즐겁게 공연해서 엄청 행복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하이키는 지난해 1월 첫 번째 싱글 ‘애슬레틱 걸’(Athletic Girl)로 데뷔한 후 당당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사랑받았다.

이들은 서이, 리이나, 열, 시탈라 4인조로 데뷔했다. 이후 시탈라가 그룹을 탈퇴하고 휘서가 합류하면서 멤버 1명이 바뀐 4인조가 됐다.

‘애슬레틱 걸’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이달 4일을 기준으로 1,176만 회를 넘겼고 ‘런’은 1,404만 회를 기록했다.

새해를 맞은 하이키는 하고 싶은 것이 매우 많다고 전했다.

“2023년 목표는 음악방송 1위랑 연말 콘서트 출연이에요.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하”(리이나)

/연합뉴스



걸그룹 하이키

/GLG 제공

# BTS, 골든디스크 6년 연속 대상 신기록

### 아이브, 신인상·대상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신기록을 썼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음반 부문 대상을 비롯해 음반 본상, 탁월 골든디스크 인기상, 멤버 제이홉이 수상한 ‘타이 팬스 서포트 워드 바오지’까지 총 4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2018년 이래 6년 연속

으로 음반 부문 대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2020년에는 음반·음원 대상을 석권하기도 했다.

그들을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고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힙합 아이돌로 데뷔해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구축해 빌보드 싱글·앨범 차트 1위를 모두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

난 9년간의 궤적을 정리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로 활동 제1막을 마무리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걸그룹 돌풍의 주역인 신인 아이브는 이날 신인상과 음원 부문 대상을 동시에 받아 총 3관왕에 올랐다. 아이브는 데뷔곡 ‘일레븐’(ELEVEN)부터 ‘러브 다이브’(LOVE DIVE)와 ‘애프터라이크’(After LIKE)까지 3연타 히트를 기록했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서현주 PD는 제작자상을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 복수의 칼날 빠른 이선균... ‘법쩐’ 8.7%로 출발

이선균이 모든 것을 내걸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활극의 주인공으로 변신한 SBS 금토드라마 ‘법쩐’이 8%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일 밤 10시 방송된 ‘법쩐’ 첫 회 시청률은 8.7%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소년 은용(이선균)의 성장기가 그려졌다.

소년원에서 출소한 은용은 소년원 동기의 제안으로 용역 강패 일을 하던 중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인 명인주(김홍파) 회장을 만나고,

명 회장의 심복이 돼 사채업으로 큰돈을 번다. 은용은 몽골로 떠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야 하지만,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접하고서는 모든 것을 접고 10년 만에 귀국하기로 한다.

은용의 조카인 검사 장태준(강우석)은 명 회장을 비롯한 거물들이 얽힌 주가 조작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명 회장과 악연이 있는 육군 박준경(문채원) 소령 역시 자신만의 복수를 준비한다. 드라마는 은용과 박준경이 어릴 적 친구였다는 것을 암시하며, 앞으로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 반격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중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사랑의 가족 11:55 헌식의 마음 스페셜	6:10 생활의 발견스페셜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 아침 9:00 KBS이웃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40 두뇌공조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11:15 헬로키즈 과학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직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 8:50 좋은이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면	6:10 세계대마기행 7:00 꼬버스타요 7:15 출동! 슈퍼맨스 7:45 고디야노 우리동네공룡 8:00 덩달랑 유치원 8:20 로보카폴리 9:05 슈퍼퍼머 잉글리시 9:20 비발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디문화 고부 열전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7:00 말발랑이 뽀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대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다큐 프리임 10:45 신개념의 맛터사이클다이어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메인즈 11:55 클래스e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데일리브 11:30 KBS 뉴스라인	6:30 2TV생생정보 7:50 태몽의 신부 8: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9:50 두뇌공조 11:00 개는 훌륭하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0: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트롤리 11:10 동상이몽 2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데일리브 11:30 KBS 뉴스라인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1월 9일 (음력 12월 18일)

 子	48년생 집중력이 필요한 하루. 60년생 지출을 삼가고 유지하라. 72년생 성과가 크지 않으니 실망도 크다. 84년생 주위 사람들과 의견충돌을 조심하라.	 寅	52년생 의심을 버려라. 64년생 사람과의 관계에 적당 선을 유지하면 상처받지 않는다. 76년생 의기투합하라. 88년생 생지나친 낙관은 하지 마라.	 申	44년생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니 피곤하다. 56년생 감정표현에 힘써라. 68년생 공적인 일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라. 80년생 멀리 보는 안목이 생긴다.
 丑	49년생 행복이 넘치니 바람 것이 없다. 61년생 가족과의 사랑이 넘치니 서로에게 다정하다. 73년생 모든 것이 순조롭다. 85년생 승부수를 던질 때다.	 巳	41년생 넉넉한 마음으로 배 풀어라. 53년생 인내심을 길러보자. 65년생 혼자서 해결책 찾지 말고 의논하라. 77년생 생실속은 먼저 챙기고 보자.	 未	45년생 욕심은 부리지 마라. 57년생 의욕이 넘치니 선택할 일만 남았다. 69년생 계획을 세워 실수 없도록 하라. 81년생 생기회는 다시 오니 마음 쓰지 마라.
 寅	50년생 웃어넘으로서 처신에 신경 써라. 62년생 긴장감이 활력을 가져다준다. 74년생 매번 하는 일에도 실수하기 쉽다. 86년생 과정을 이겨내라.	 午	42년생 경사가 이어진다. 54년생 신간이 편해지니 한가롭다. 66년생 지나간 것에 미련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라. 78년생 포기는 이른다.	 戌	46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58년생 이웃사촌이 최고다. 70년생 성급한 판단은 위험을 만들 수 있다. 82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다 내일을 망칠 수 있다.
 卯	51년생 허세를 버려라. 63년생 설레는 만남이 이뤄진다. 75년생 자존감이 떨어지니 용기를 가져라. 87년생 지금 시련이 훗날 성공의 길이다.	 亥	43년생 마음 둘 곳 생기니 하루가 기쁘다. 55년생 재물이 늘어나니 여유롭다. 67년생 잘못에 시비를 가리지 마라. 79년생 꿈은 크게 가져라.	 亥	47년생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날이다. 59년생 가능하다면 양보하는 것이 이롭다. 71년생 생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83년생 후회할 일 시작도 마라.